

DBpia

불교설화에서의 僧과 龍蛇

- 『근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권13제33화와 『삼국유사』 권4義解 제5 『宝壤梨木』 條와의 비교

仏教説話における僧と竜蛇 - 『今昔物語集』 卷13第33話と 『三国遺事』 卷4義解第5 『宝壤梨木』 條との比較

저자 (Authors)	이예안
출처 (Source)	일본연구 29 , 2010.8, 137-151 (15 pages) Center for Japanese Studies Chung-ang University 29 , 2010.8, 137-151 (15 pages)
발행처 (Publisher)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The Center for Japanese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5833
APA Style	이예안 (2010). 불교설화에서의 僧과 龍蛇. 일본연구 , 29, 137-15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31 14: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불교설화에서의 僧과 龍蛇

—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권13제33화와
『삼국유사』 권4義解제5『宝壤梨木』條와의 비교 —

이 예 안*

hinolee@jejunu.ac.kr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2.3 『삼국유사』에서 승과
용의 조우 |
| 2. 본론 | 2.4 『삼국유사』에서 용과 비 |
| 2.1 『곤자쿠모노가타리
슈』에서 승과 용사의 조우 | 3. 맺음말 |
| 2.2 『곤자쿠모노가타리슈』에서
용사와 비 | |

Key Words : 불교(Buddhism), 불교설화(Buddhist tales), 승(Monks),
용사(Dragons · Snakes), 고대신앙(Ancient religion)

1. 머리말

본 논문은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와 『삼국유사』 권4義解제5『宝壤梨木』條를 고찰 대상으로 한다. 설화집 『곤자쿠모노가타리슈』(12세기 초 성립)에는 세속잡사의 이야기도 있지만 불법에 관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史書·野史集·佛敎史書·高僧傳·설화집 등의 성격을 갖는 『삼국유사』(13세기 말 성립)는 三國(高句麗, 百濟, 新羅)의 遺事를 채록한 것이고,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고려 중기까지의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 작품 성격상 차이는 있으나, 『삼국유사』가 세속잡사의 이야기보다 불법에 관한 것이 많이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일과 조교수 비교문학

채록되었다는 점에서도 『곤자쿠모노가타리슈』와 『삼국유사』는 비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삼국유사』에 채록된 내용이 주로 삼국의 遺事임을 감안한다면 『곤자쿠모노가타리슈』와 비교하는데 있어서 편찬 연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곤자쿠모노가타리슈』에 관한 선학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용사(蛇)설화에 관한 것은 변신담(인간이 뱀으로, 뱀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²⁾와 『곤자쿠모노가타리슈』에 나타난 뱀과 용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³⁾가 있다. 『삼국유사』에 있어서 용사설화에 대한 연구는 김승호가, 용과 불교의 관련성, 더구나 求法 고승의 귀국담에 주력한 결과,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護佛·護國의 차원에서 논의되던 용⁴⁾의 성격에 의문을 갖고 귀국하는 승의 용궁체험을 고승의 성장·성숙성을 표출하는 문학적 기능으로 의미를 확대하고, 구원해야 할 공간으로서 용궁을 재해석했다⁵⁾. 『곤자쿠모노가타리슈』와 『삼국유사』를 비교 고찰한 연구도 있다⁶⁾.

- 1) 일본이나 한국의 용은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것이다. 중국 쪽에서 보면, 용은 상고시대 어느 族團이 숭배하던 동물 토렘이라 본다. 현실적 실제로 용은 뱀으로 보고 있으나 何新은 용의 생성은 生物性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 자연적 意象이 생물화된 쪽에 보다 주목한다. 실제로 용이 뱀의 변형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후세에 이르면서 뱀의 형상에 용의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何新著 洪熹역(1990)『신의 기원』 동문선 pp.98-102)
- 2) 中村禎里(1984) 『日本人の動物観—変身談の歴史—』海鳴社 pp.77-118
林道江(1984) 『動物変身談の展開—『今昔物語集』を中心に—』『平安文学研究』12-10 pp.174-183
- 3) 문명재(2001) 『『今昔物語集』에 나타난 뱀의 이미지』 『日本研究』(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語綜合研究센터 日本研究所) 제17호 pp.163-187
문명재(2007) 『『今昔物語集』에 나타난 용의 이미지 고찰』 『日本研究』(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語綜合研究센터 日本研究所) 제33호 pp.95-111
- 4) 金煥泰(1974) 『新羅佛教에 있어서의 龍神思想』 『佛教學報』11 東國大 佛教文化研究所
黃淇江(1975) 『新羅佛教說話研究』一志社 pp.246-257
- 5) 金承鎬著(1992) 『求法여행과 그 附帶說話의 一考察—歸國僧의 龍宮체험을 중심으로—』 『韓國僧傳文學의 研究』民族社 pp.273-301
- 6) 拙稿(2004) 『佛教說話에 있어서 僧과 毒龍·毒蛇—『今昔物語集』卷13第17회와 『三國遺事』卷5神呪第6『惠通降龍』條와의 비교—』 일본어문학제22호 한국일본어문학회
拙稿(2005) 『仏教說話における僧と「竜」—『今昔物語集』と『三國遺事』との比較—』 일어일문학연구 제55호 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拙稿(2006) 『『今昔物語集』(本朝部)에 있어서 인간과 뱀의 조우』 일어일문학연구 제58호 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설화문학과 한국설화문학 중에 나타나 있는 용사와 승의 관계를 비교 연구하는 데 있다. 불교설화에 있어서 용사와 승에 관한 설화는, 일본은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를, 한국은 『삼국유사』 권4 義解제5『宝壤梨木』條를 들 수 있다⁷⁾.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와 『삼국유사』 권4 義解제5『宝壤梨木』條의 기본구조는 승과 용이 만나게 되고 승의 부탁으로 용이 비를 내리게 하는 구성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두 설화 안에는 승과 용사가 만나는 과정과 그 후 용이 비를 내리게 하는 과정 등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어, 본고에서는 두 설화의 구성을 파헤치고 양국의 두 설화에 대해서 비교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비교고찰은 두 작품에 나타난 승에 있어서 용사가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2. 본론

2.1 『곤자쿠모노가타리슈』에서 승과 용사의 조우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 『용이 승의 법화경 독송을 듣고 승의 부탁으로 비를 내리고 죽는 이야기(竜、聞法花誦誦、依持者語降雨死語)』에서 나라(奈良)의 류엔사(龍苑寺) 승이 매일 사람들에게 『법화경』 강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중 중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청문하러 오는 용이 있었다. 용이 『법화경』 청문이 거둬지면서 승과 용은 친한 관계가 된다. 용이 사람으로 변신하여 『법화경』을 청문하는 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용이 『법화경』 청문에 대한 부분을 『법화경』 序品에는 법화설법을 하는 자리에 八大龍王이 청중으로 앉아 있는 것을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그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⁸⁾.

7) 『곤자쿠모노가타리슈』에서는 용과 뱀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확실히 용인지 뱀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양국의 고대신앙에서 용과 뱀은 수신, 농경신 등으로 같은 성질이 신으로 숭앙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본 논문에서 용과 뱀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8) 坂本幸男·岩本裕訳注(1962) 『法華經上』 岩波書店 p.14

팔대용왕 있다. 난타용왕·발난타용왕·사가라용왕·화수길용왕·덕차가용왕·아나바달다용왕·마나사용왕·우발라용왕 등으로 각자 얼마간의 수많은 권속과 동행하다.(八竜王あり。難陀竜王・跋難陀竜王・娑伽羅竜王・和修吉竜王・徳叉迦竜王・阿那婆達多竜王・摩那斯竜王・優鉢羅竜王等にして、各、若干の百千の眷属と俱なり)

『곤자쿠모노가타리슈』권13제33화의 『용의 『법화경』 청문』 담은 『법화경』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의문점은 용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청문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는 『곤자쿠모노가타리슈』권16제15화 『관음을 믿은 사람이 용궁에 가서 부를 얻는 이야기(仕観音人、行竜宮得富語)』라는 제목으로, 평소 관음에 귀의했던 젊은 남자가 여의(如意)만드는 남자가 잡은 작은 뱀을 구해준 대가로 우물 아래 용궁에 안내받아 용왕으로부터 금으로 된 떡을 받고 돌아와 부자가 된 이야기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뱀은 남자 앞에 『열둘, 열셋 정도의 멋진 기모노·하카마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年十二三許ノ女ノ形チ美麗ナル、微妙ノ衣・襟ヲ着タル)』로 나타나 남자를 용궁으로 안내한다. 『곤자쿠모노가타리슈』권13제33화와 권16제15화의 공통점은 불교에 깊이 관련된 사람과 용사와의 만남이다.

권16제16화 『아마시로쿠니의 여인, 관음의 도움으로 뱀의 난을 피한 이야기(山城国女人、依観音助遁蛇難語)』라는 제목으로, 개구리를 먹으려는 뱀에게 딸의 아버지가 개구리를 놓아주면 나의 사위로 맞이하겠다고 말한다. 뱀은 약속한 대로 고위(五位)의 차림의 인간으로 변신해서 나타났다. 딸은 뱀과 결혼해야 하는 궁지에 빠지나 관음의 가호와 계의 도움으로 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권31제34화 『아마토나라의 젓가락무덤이야기(大和国箸墓語)』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는 『니혼쇼키(日本書紀)』의 오모노누시(大物主神)와 아마토토토히모모소비매(倭迹迹日百襲姫命)와의 신혼담과 거의 같은 이야기이다. 내용을 소개하면 황녀가 매일 밤 찾아오는 모르는 남자에게 이름을 묻자 빗살자에 있는 기름통 안을 보라고 해서 보았다. 그 안의 작은 뱀을 보고 황녀가 무서워 띤 것을 남자가 원망하자 황녀는 자신의 음부를 젓가락으로 찌르고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도 뱀이 남자로 화신한 것은 통혼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자의 정체가 뱀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황녀를 원망하자 황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다시 말하면 황녀는 뱀의 화신인 남자에 대해서 깊은 애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동물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권13제33화와 권16제15화와 권16제15화와 권31제34화에서 뱀이 죽지 않고 그대로 인간으로 변신하는 사상은 고대에 있어서 신적인 존재인 뱀과 인간과의 결혼 즉, 神婚적인 색채가 농후하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에 등장하는 용이 사람으로 변신했다는 것은 본래 통혼을 위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불교설화에 받아들여지면서 『법화경』을 청문하기 위해 사람으로 변신한 것으로 변용되었다고 생각된다.

2.2 『곤자쿠모노가타리슈』에서 용사와 비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에서 용이 비를 내리게 하는 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국내 전 지역이 가뭄이 계속되어 곡물은 다 말라 죽을 지경이 된다. 그러자 왕이 승을 불러 비를 내리게 하도록 명하는데 그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⁹⁾.

자네가 오랜 세월 동안 법화경을 강설하므로 용이 늘 거기에 와서 가르침을 듣는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 용이 자네와 아주 친하다는 소문이다. 그런데 현재 국내는 가뭄이 계속되어 곡물은 곧 말라 죽게 되었다. 나라의 슬픔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자네는 당장 법화경을 강설해라. 그렇게 하면 그 용은 반드시 와서 가르침을 들을 것이다. 그 때 용에게 부탁해서 비를 내리게 하여라. 만일 그렇게 못하면 너를 추방해 일본국내에서 못살게 할 것이다. (汝于年来法華經ヲ講ルニ依テ、竜常ニ其ノ所ニ來テ法ヲ聞ク。而ルニ、其ノ竜汝ト語ト深キ由、世ニ聞エ有リ。而ルニ、近來天下旱魃シテ、五穀皆枯失ナムトス。国ノ嘆キ何事カ此レニ過ム。汝于速ニ法華經ヲ講ゼムニ、其ノ竜必ズ來テ法ヲ聞カムニ、竜

9)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본문 인용은 池上洵一氏 『新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 1993)로 한다.

ヲ語ヒテ、雨ヲ可降シ。若シ此レヲ不叶ズハ、汝ヲ追却シテ日本国ノ内ニ不可令住ズ)(p.254)

승은 왕의 명령에 따라 승이 용을 불러 사정을 설명하자 용은

저는 오래 동안 『법화경』강설을 들어서 나의 악업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지금은 선근(善根)의 공덕으로 안락의 경지에 있습니다.

이 몸을 버려 성인의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단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저와 관계가 없습니다. 대범천왕을 비롯하여 나라의 재해를 없애려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가서 비의 문을 열려고 하면 즉시 나의 목을 벨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목숨을 법화경에 공양해서 사후에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3일간 비를 내리게 하겠습니다. 그 후 저는 반드시 살해됩니다. 성인이시여 부디 나의 시체를 찾아내서 묻어 그 위에 절을 세워주세요. 그 곳은 해구리(平郡)마을의 서쪽 산 위에 하나의 연못이 있습니다만 거기입니다. 거기에 가서 봐주세요. 또 제가 다닌 4곳이 있습니다. 그 4곳에도 절을 세워주세요. (我レ年來法華經ヲ聞テ、惡業ノ苦ビヲ拔テ、既ニ善根ノ樂ビヲ愛タリ。願クハ此ノ身ヲ棄テ々聖人ノ恩ヲ報ゼムト思フ。但シ、此ノ雨ノ事、我ガ知ル所ニ非ズ。大梵天王ヲ始メトシテ、國ノ災ヲ止メムガ為ニ雨ヲ不降ザル也。其レニ、我レ行テ雨戸ヲ開テハ、忽ニ我ガ頸ヲ被切レナムトス。然リト云ヘドモ、我レ、「命ヲ法華經ニ供養シ奉テ、後ノ世ニ三惡道ノ報ノ不受ジ」ト思フ。然レバ、三日ノ雨ヲ可降シ。其ノ後、我必ズ被殺シナムトス。願クハ聖人我ガ屍骸ヲ尋テ、埋テ、其ノ上ニ寺ヲ起テヨ。其所ハ平郡ノ郡ノ西ノ山ノ上ニ一ノ池有リ、其ヲ可見シ。亦、我ガ行ク所四所有リ。皆其ノ所々ニ寺ヲ起テ々仏寺ト可成シ)(p.254-255)

라고 대답한다. 그 후 용은 멋대로 비를 내리게 했다고 천제에게 살해당한다. 이로 인해 승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백성들도 가뭃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용의 명복을 빌기 위해 4개의 절을 건립했다는 연기담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는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4제41화 「고보대사가 청우경을 講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야기(弘法大師、修請雨經降雨語)」라는 제목으로, 고보대사가 직명으로 청우경의 법을 행해 신센엔(神泉苑)에 선녀용왕을 권청해서 큰비를 내리도록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

야기는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에서 승이 용에게 사정을 설명해서 비를 내리게 하도록 부탁한 점과는 다르지만 용이 기우와 관련되어 있는 점이 같다. 또 이 두 이야기에서 고대농경사회에 있어서 비가 국가의 중대한 관심사였음도 엿볼 수 있다.

야요이(弥生)시대의 수도경작 이래 오랫동안 일본에서는 농경사회가 형성되었다. 벼농사에는 물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가뭄이 계속되면 여러 형태의 기우제가 행해졌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민속신앙에서의 기우제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지만¹⁰⁾, 일본에서 기우제에 대한 기록으로써 가장 오래된 것은 『후소랏키(扶桑略記)』의 스이코(推古)천왕33년(625)의 조에, 고려승 惠灌에게 명해서 靑衣를 입고 三輪을 강독하게 하니 효험이 있었다. 그 공덕으로 그를 僧正에 임명했다는 기록이다.

다카야 시게오(高谷重夫)氏에 따르면 일본에 있어서 헤이안초기의 밀교의 발전과 함께 請雨經法을 행해 용왕에게 비를 기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주장한다¹¹⁾.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와 권14제41화는 이러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헤이안(平安)초기의 密敎의 발전과 더불어 請雨法에 있어서 용왕에게 비를 기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와 권14제41화는 그러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에서도 천왕이 승에게 ‘용에게 부탁해서 비를 내리게 하라’고 명했다라는 것은 기우제가 국가적행사로써의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용이 비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용이 비를 멋대로 내리게 해서 천재에게 살해당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용이 토막토막 잘라 죽인 모습은 ‘야마타노오로치(八咫の大蛇)가 퇴치된 모습과 동형이다. 모리야 토시히고(守屋俊彦)는 고대신앙에서 뱀을 죽이는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고대신앙에서 뱀은 곡물신인 동시에 수신이었다. 곡물신인 경우와 수신인 경우

10) 高谷重夫氏(1982) 『古代の雨乞』 『雨乞習俗の研究』 法政大学出版局

11) 상계서

그들을 자르는 의미는 다소 다르다고 생각한다. 곡물신으로서 뱀을 자르는 것은, 자른 뱀을 눈에 뿌리는 주농법(呪農法)의 하나였다고 여겨진다. 수신의 경우는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수신을 위협해서 비를 내리도록 강요한 것이 아닌가? 고대인은 그들 생활의 행복을 얻기 위해 신에게 겸허하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변해서 강요하거나 했다. 신과 함께 하는 고대인에게 있어서 일견 모순되게 여겨지지만 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우 인간적인 수단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古代信仰においては蛇は穀物神であるとともに水神であった。それが穀物神である場合と水神のそれとでは、それを切る意味が多少違ってゐるのではないかとも思はれる。穀物神としての蛇を斬るのは、この切った蛇を田にばらまくといふ呪農法の一つだったかと思ふ。水神の場合は雨乞ひをして切るぞと水神を嚇し雨を降らせることを強制したのではあるまいか。古代人はその生活の幸福を手に入れるために神に敬虔に祈った訳だが、それがかなないと、逆に一転して強要したりしたのである。神とともにある古代人にとっては一見矛盾したことではあるが、神とともにあるだけに、かうした甚だ人間的な手段をとらしめることもあったのであらう。)12).

또한 모리야 토시히고는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에서 용이 토막 토막 잘린 것에 대해 비의 신으로서 뱀을 자르는 의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한다. 뱀을 토막토막 자르는 행위는 고대신앙에서 기우제의 의례로 간주되지만, 불교설화에서는 죄 많은 동물인 용사의 몸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통과의례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고대신앙에서는 신적인 존재였던 용사가 불교설화에서는 다른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즉 수신이었던 용사가 불교설화에서는 비천하고 죄 많은 축생이며 불교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용사는 수신·농경신으로서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에서 용이 비를 내리는 이유는 『법화경』 청문에 대한 보은 때문이다. 즉 용의 비를 내리는데 이 이야기의 중심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법화경』 영험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불교설화에서 용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다.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에서도 용은 수신의 이미지의 일부는 소멸하지 않은 채 비천하고 죄 많은 축생으로

12) (守屋俊彦(1967) 『素戔鳴尊の涕泣神話』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日本神話』有精堂)

불교의 구제를 기다리는 동물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나타나 있다.

2.3 『삼국유사』에서 승과 용의 조우

『삼국유사』 권4義解제5『宝壤梨木』條에서 승과 용의 조우하는 장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양사가 중국에서 법을 전수받고 돌아오는 도중 서해 용이 그를 용궁으로 맞이해서 경을 염송케 하고, 금라가사(金羅袈裟) 한 벌을 보시했다. 그리고 용왕은 겸하여 그의 아들 이목을 함께 딸려 보내어 보양사를 모시게 하고 보양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것이었다.

“지금 삼국이 소란해서 아직 불법에 귀의한 임금이 없지만, 내 아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서 작갑(鵲岬)에다 절을 세우고 지내면 적을 피할 수 있고, 몇 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불법을 보호할 어진 임금이 나와서 삼국을 평정할 것이다.”(p.293)

보양사는 용왕과 작별하고 돌아와 용왕의 말한 곳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작갑사’라고 했다. 이 절에 보양은 머물었고 용왕의 아들 이목은 항상 절 곁의 조그만 못에 있으면서 은근히 법화를 도왔다. 어느 해인가 날이 몹시 가물어 곡식이며 채소들이 바짝 말라들었다. 보양사는 이목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게 했다. 그런데 천제가 이목이 자기의 직분에 넘치는 짓을 했다고 하여 그를 죽이려 하자 보양사가 이목을 도와준다.

이 이야기에서 승이 용궁에 들어가 경을 염송하는 데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권3摺像제4『전후에 가지고 온 사리(前後所將舍利)』 조에, 보요선사가 남월에 서 대장경을 구하여 본국으로 돌아올 때 갑자기 풍량이 일어나자 神龍의 짓으로 보고 주문을 외자 바람은 자고 물결은 잠잠해졌다. 여기에 갑작스런 폭풍우나 불순한 기후를 용신사상과 관련시켜 상상하는 고대인들의 사고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요선사는 해룡왕사가 있는 산에 절을 짓는데, 그 해룡왕사에는 龍王堂이 있어 영이한 일이 자못 많다. 그 용왕은 그때 장경을 따라와서 머무른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용은 사나운 신의 이미지와 불법을 수호하는 신의

13) 『삼국유사』 본문인용은 리가원·허경진 옮김(한양출판, 1997)로 한다.

이미지가 중첩되어 나타나 있다. 보요선사가 사나운 용신을 불법으로 다스렸다는 영험담이기도 하다.

권2紀異제2 「처용랑과 망해사(處容郎望海寺)」조에 갑자기 구름과 안개로 주변이 어두워져 길을 헤맸다. 이것을 동해용이 이변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하여 왕이 용을 위해 절을 세우도록 명하자 구름과 안개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이변을 불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원시종교에 대한 불교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이야기이다.

권3搭像제4 「낙산사의 두 보살인 관음·정취와 조신(洛山二大聖觀音 正趣調信)」조에도, 의상법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온 후 靈蹟을 방문했는데 의상법사에게 여의보주를 바치는 동해용이 등장한다. 이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상이 여기서 재계한 지 7일 만에 깔고 앉았던 자리를 새벽 물 위에 띄웠더니, 용천팔부(龍天八部)들이 시중을 들며 굴 안으로 인도해 들어갔다. 의상이 굴 안의 허공에 참례하자, 수정으로 만든 엄주 한 껍미를 내어주었다. 의상이 받아가지고 물러나오자 동해의 용이 또한 여의보주(如意寶珠) 한 알을 바쳤다. 법사가 받아가지고 나와 다시 7일 동안 재계하자, 그제서야 관음보살의 진신이 보이면서 말했다.(pp.249-250)

용천팔부는 팔부중(八部衆) 가운데 백중(百衆과 龍衆)을 말하는데 이들은 불법을 수호하는 神將들이다. 이 이야기에서도 불법을 수호하는 용이 등장하고 있다.

권3搭像제4 「오대산에 있는 5만 진신(台山五萬眞神)」조에도 자장이 영적을 두루 순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자 太和池의 용이 나타나 재를 청하는 용이 등장한다.

권5神呪제6 「명랑법사의 신인중(明朗神印)」조에도 서해용의 청에 의하여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해 받고, 지하를 잠행하여 본가의 우물 밑으로 솟아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용도 호법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사나운 악룡과 불법을 수호하는 선룡이 등장하지만, 高僧들의 영험담에 등장하여 고승들의 영험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여되어있

다고 볼 수 있다.

보양사가 용궁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겠다. 용궁은 『삼국유사』에서 승과 용이 교류하는 異界로써 빈번히 등장한다. 예를 들면, 권4義解제4 「원효가 구속을 받지 않다(元曉不羈)」, 조에 원효사가 해룡의 권유로 『금강삼매경소』를 저술하는 이야기, 권5神呪제6 「명랑법사의 신인종(明朗神印)」, 조에 명랑이 용궁에 들어가서 神印을 얻어 적을 물리치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이야기 등이다. 이들 이야기에서 용은 승을 돕는 호법룡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용궁은 승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는 곳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보양사가 용궁에서 본국에 돌아와 용왕이 말한 작갑이라는 동리에 이르렀는데 홀연히 한 노승이 자칭<원광>이라 하면서 인괘를 안고 나타나 그것을 보양사에게 전수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한 무리의 까치떼가 땅을 쪼고 있는 곳을 파 보았더니 해묵은 벽돌들이 있어 쌓아올려 탑을 이룩하자 꼭 맞아떨어졌다. 보양사는 용궁에서 돌아와서 용왕이 말한대로 했더니 전대의 가람의 폐허를 찾아내 절을 복원할 수 있었다. 보양사의 용궁방문은 고승으로서의 神聖性的의 확인이며, 용궁과 용왕은 보양사의 신비적인 체험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용왕이 보양사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절을 짓고 있으면 불법을 보호하는 어진 임금이 나와 삼국을 평정할 것 이라고 예언했고 후에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로서 용의 이미지가 확실히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2.4 『삼국유사』에서 용과 비

다음은 『삼국유사』 권4義解제5 「宝壤梨木」條에서 해룡의 아들인 이목이 절의 옆 연못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한국의 고유신앙에서는 우물, 연못 등에 사는 地龍이 그 지방의 강우를 담당한다고 믿었다. 다시 말하면 이목이 절 옆 연못에 살면서 승의 명에 따라 가뭄 때는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은 고유신앙인 용신신앙과 불교가 습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목은 원시적인 종교관념인 지룡의 이미지와 호법룡으로서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나타나 있다.

삼국시대 성덕왕14년 6월에 林泉寺의 연못 위에서 기우제를 행했고¹⁴⁾, 백

제법왕 2년 봄에는 왕이 漆岳寺에서 기우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⁵⁾. 권4義解제5 『宝壤梨木』條에서 승이 용에게 비를 내리도록 명했던 것도, 이와 같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보양사가 이목을 죽지 않게 했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가 되는 것이 『三國遺事』紀異제2 『원성대왕』條에 두 여인이 안뜰에 나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첩들은 동지(東池)와 청지(靑池)에 살던 두 용의 아내입니다. 당나라 사신이 하서국(河西國)의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남편 두 용과 분황사 우물 등에 살던 세 용을 저주해 작은 물고기로 변신시키고는, 통속에 넣어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폐하께서 두 사람에게 칙명을 내려 우리 남편 등의 호국룡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하소서.“(p.125)

이 말을 들은 왕은 용들을 되찾아 온다. 이 이야기에서 용은 호국룡이므로 다른 나라에 뺏아겨서는 안된다는 사상이 나타나 있다. 『三國遺事』 권4義解제5 『宝壤梨木』條에서도 용은 호국룡이기 때문에 천제에게 살해당하게 해서 안된다는 사상이 나타나 있다. 또한 고대신앙에서는 신이었던 존재가 불교 설화에서는 승의 보호가 필요로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3. 맺음말

『근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와 『삼국유사』 권4義解제5 『宝壤梨木』條를 비교한 결과

- (1) 용이 승의 경문 독송을 청문하다.
- (2) 승과 용이 친밀한 관계가 되다.
- (2) 용이 비를 내리게 한다.

14) 김부식지음/이병도역주(2004)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p.210

15) 김부식지음/이병도역주(2002)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p.91

라는 기본구조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가 용이 비를 내리게 했다는 데 중점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고승(高僧)들의 영험담에 중점이 놓여 있다는 데도 공통점이 있다.

상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째, 승과 용이 만나게 된 계기가 다르다.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의 경우는 용이 승의 『법화경』 강설을 청문하러 오는 것이 승과 만나는 계기가 되지만, 『삼국유사』 권4義解제5『宝壤梨木』條의 경우는 승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도중 용궁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용과 만나게 된다.

둘째, 용이 비를 내리게 한 이유가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의 경우는 용이 승의 『법화경』 청문으로 삼악도(三惡道)의 고통에서 벗어나 善根을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보답이다. 『삼국유사』 권4義解제5『宝壤梨木』條에서는 나라가 가뭄이 계속되자 승의 명령에 따라 용이 비를 내리게 한다. 즉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의 용은 불교에서 말하는 동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으나, 『삼국유사』 권4義解제5『宝壤梨木』條의 용은 승을 보좌하는 護佛龍으로서 해석하고 있다.

셋째,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에서는 비를 天帝의 허락 없이 비를 내리게 한 것 때문에 천제에게 살해당한다. 『삼국유사』 권4義解제5『宝壤梨木』條에서도 용이 비를 내리게 한 이유 때문에 천제에게 살해당할 것을 승이 도와준다.

일본에서는 처음에 용사가 신으로서 숭앙되다가, 불교가 들어와 불교와 습합하는 과정에서 용사는 삼악도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동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교에 의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존재, 『곤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에서처럼 죽어서 『법화경』 공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존재라는 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경우처럼 용사가 불교에 의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교를 수호하는 호불룡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므로 용사가 살해당하거나 다른 나라에 빠지면 불교입장에서도 국가입장에서도 큰일이라는 사상이 있다. 이러한 사상은 『삼국유사』 권4義解제5『宝壤梨木』條에서 서해 용왕의 아들인 이목이 승이 살고 있는 절의 연못에 살면서 승을 보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실히 나타나 있다.

넷째, 『근자쿠모노가타리슈』 권13제33화에서 승은 용이 다녔던 곳과 용이 살해당한 연못에 절을 세우고 명복을 빈다. 즉 승과 용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로 끝난다. 『삼국유사』 권4義解제5『宝壤梨木』條에서는 용의 말한 곳에 절을 세우자 삼국이 통일된다. 이것은 불교흥망이 국가흥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상인데, 승과 용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불교와 국가를 위한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김부식 지음/이병도 역주(2004)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p.210
 (2002)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p.91
 金承鎬著(1992) 「求法여행과 그 附帶說話의 一考察-歸國僧의 龍宮체험을 중심으로-」
 『韓國僧傳文學의 研究』 民族社 pp.273-301
 金煥泰(1974) 「新羅佛敎에 있어서의 龍神思想」 『佛敎學報』11 東國大佛敎 文化研究所
 何新著 洪熹譯(1990) 『신의 기원』 동문선 pp.98-102
 리가원·허경진 옮김(1997) 『삼국유사』 한양출판
 李丙燾譯(1992) 『譯注原文三國遺事』 明文堂
 黃湏江(1975) 『新羅佛敎說話研究』 一志社 pp.246-257
 池上洵一(1993)校注 『今昔物語集』 『新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坂本幸男·岩本裕訳注(1962) 『法華經上』 岩波書店 p.14
 高谷重夫氏(1982) 「古代の雨乞」 『雨乞習俗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中村禎里(1984) 『日本人の動物觀-變身談の歴史-』 海鳴社 pp.77-118
 林道江(1984) 「動物變身談の展開-『今昔物語集』を中心に-」 『平安文學研究』12-
 10 pp.174-183
 守屋俊彦(1967) 「素戔鳴尊の涕泣神話」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日本神話』有精堂

접 수 일: 06월 30일

심사완료: 07월 23일

게재결정: 07월 27일

<要旨>

仏教説話における僧と竜蛇

—『今昔物語集』巻13第33話と

『三国遺事』巻4義解第5「宝壤梨木」条との比較—

本論文の目的は、日本文学の中で形成された僧と「竜蛇」との関係と、韓国文学に現われる僧と「竜蛇」との関係を比較研究することであり、その第一段階として『今昔物語集』巻十三第三十三話と『三国遺事』巻四義解第五「宝壤梨木」条との比較分析することとする。『今昔物語集』は12世紀初めごろ、『三国遺事』は13世紀末に編纂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されている。両作品の比較研究において編纂年代のずれが問題になっているが、『三国遺事』の主な採録内容が三国(高句麗、百濟、新羅)の遺事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編纂年代のずれは問題にならないと思われる。また、説話集と呼ばれる『今昔物語集』と、史書・野史集・仏教史書・高僧伝・説話集などの性格を持つ『三国遺事』では、作品性格上の相違はあるが、両作品は世俗雑事の話より仏法の話が多く含まれている点でも類似しており、特に両作品の類似話の比較考察は価値があると考えられる。

『今昔物語集』巻十三第三十三話と『三国遺事』巻四義解第五「宝壤梨木」条において僧と「竜蛇」の出会い話を比較分析し、「竜蛇」の性格を解明してみた。その結果、次のような結果が得られた。その共通点としては、その一、「竜蛇」には僧の験力を確認させる役割が担わされている点、その二、「竜蛇」の神が仏教と習合する過程を物語っている点、その三、「竜蛇」が神としての痕跡を強く残している点である。

両話の相違点としては、その一、『今昔物語集』で「竜蛇」は、僧の難題を解決する存在として登場しているが、『三国遺事』では「竜」が予言者として登場している点、その二、『今昔物語集』では「竜蛇」に神としての痕跡が強く残っているながらも、仏教により救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罪深い動物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のに対して、『三国遺事』では最初から「竜」は護仏竜である神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点である。